

## Online Series

2016. 04. 27. | CO 16-11

# 노동신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제7차 당대회 전망

박주화(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갑식(북한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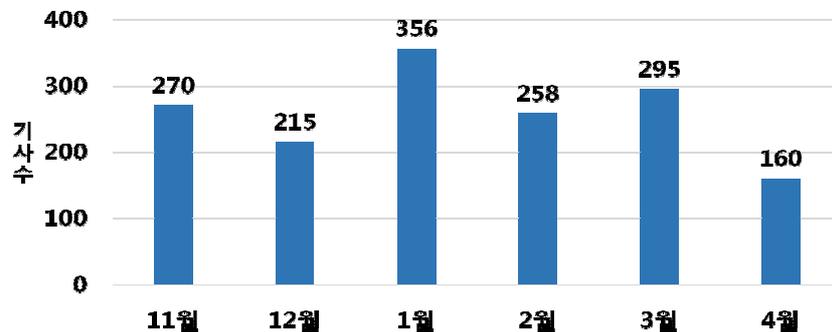
북한은 5월 6일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한다.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대회이고,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상호 증폭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당대회이기에, 제7차 당대회는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장악 방식과 수준, 엘리트의 세대교체, 경제개혁조치, 대외·대남정책 등 당대회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필자들은 당대회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제7차 노동당대회를 보도한 노동신문 기사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신문을 통해 드러난 당대회의 키워드는 ‘청년’이었다. 노동신문에 드러난 당대회는 인민생활 향상, 강성국가(강국) 건설, 백두혈통 계승, 자력갱생(자강국가), 과학기술 발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주제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청년’이었다. 즉 노동신문은 제7차 노동당대회를 인적 진용의 개편, 세대교체를 통한 ‘친위 노동당’, ‘청년 노동당’ 건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은 노동신문 기사에 드러난 당대회 관련 키워드들을 시각화한 것이다.



월별 기사 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전월에 비해 4월 기사의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월에는 22일간의 노동신문 기사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다소 기사의 수가 감소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1~3월은 하루 평균 10개 내외의 기사가 당대회를 다룬 것에 비하면 4월의 감소세는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 10월 말 당대회 개최 선언 이후 올해 3월까지의 당대회에 대한 대중적 선동에 주력했다면, 4월은 실질적 당대회 준비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림 2> 월별 당 대회 언급 기사 건수

### ‘청년’이 언급된 횟수 압도적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를 파악하였다. 그 중, 복합명사에 많이 사용되는 ‘우리’, ‘전투’, ‘건설’ 등과 같은 명사, ‘수령’, ‘원수’, ‘장군’, ‘비서’ 등과 같이 직위를 의미하는 명사는 빈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결과의 명료성을 위해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같은 의미를 가지는 두 개 이상의 명사인 경우 고빈도 단어를 선택하였다. 전반적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단어의 크기는 단어 빈도를 의미한다.

주요 키워드에 대한 월별 변화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청년의 등장 빈도가 타 명사에 비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청년이 언급된 빈도가 백두혈통,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김정일, 김일성의 언급 횟수보다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월에 ‘청년’이 1,737회 언급된 것 역시 이례적이다. 이는 작년 10월 김정일의 당창건 70주년 기념연설에서 당 정책 3대 전략의 하나로 청년중시가 제시되었고,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일이 청년강국을 내세운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lt;표 1&gt; 주요 키워드의 월별 빈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강국	138	164	501	312	160	202
강성국가	160	134	499	283	164	167
김일성	240	199	401	360	201	443
김정일	216	342	301	480	198	325
김정은	523	549	857	619	468	566
당대회	526	377	701	536	455	314
청년	551	388	1,737	594	525	655
선군	139	190	204	199	97	193
자강	0	20	250	269	239	101

둘째, ‘당대회’의 빈도가 4월에 감소세를 보였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만하다. 먼저, 당대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대회의 성과를 독려하는 동원 행사(예: 70일 전투)에 대한 기사를 통해 당대회를 간접적으로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제재로 인해 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재로 인한 자금 차단은 당대회 준비를 어렵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

셋째, ‘자강’의 빈도가 1월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가 4월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강은 2015년 12월 북한의 공식매체에 처음 등장한 단어로 이후 당대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선전전에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이다. <표 1>에서 3월에 비해 4월에 사용빈도가 줄어든 명사는 ‘당대회’와 ‘자강’ 뿐이라는 사실은 당대회 개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자강력, 자강력 제일주의가 대중관계를 염두에 둔 자주노선의 다른 표현이라면, 4월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공방국면에서 중국의 역할을 의식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 당대회의 다섯 가지 핵심 주제

당대회가 언급된 노동신문 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2~10개의 토픽으로 분석하였다. ‘우리’와 같이 상투적인 명사는 제외하였다. 2~10개의 토픽 중 해석의 용이성과 토픽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5개의 토픽으로 분석하였다. 토픽의 의미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주제’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대회 관련 노동신문 기사에 사용된 명사를 분석한 결과 5개의 숨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토픽을 특징짓는 핵심적 단어를 <표 2>에 제시하였다.

&lt;표 2&gt; 토픽모형 분석 결과

토픽 1	토픽 2	토픽 3	토픽 4	토픽 5
공장 계획 혁신 여성 근로자 기업소 농장	올해 사회주의 강국 강성국가 수소탄	주체 김정일 령도 김일성 백두산	공장 조직 기술 력사 과학기술	축전 세계 위업

첫 번째는 인민생활 향상, 두 번째 토픽은 강성국가 건설, 세 번째는 백두혈통에 대한 강조, 네 번째는 과학기술의 강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당대회에 대한 해외 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청년’은 사회주의, 김정은, 사상, 정신과 더불어 모든 토픽에 등장하였다. 청년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다섯 개의 토픽은 작년 11월 이후 꾸준히,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시간별,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정치·군사적 일정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TF-IDF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기간에 비해 각 월에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본 TF-IDF 분석 결과, 작년 11월과 12월은 올해 1~4월에 비해 인민생활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다. 2016년 1월에는 핵실험, 2월은 미사일 발사, 3월은 대북제재에 따른 대남 비난 및 병진노선 강조, 4월은 당대회에 대한 축하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 ‘미성숙’의 약점을 ‘젊음’으로 포장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청년’이 정치·경제·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강력한 정책 키워드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청년강국’, ‘청년영웅’, ‘청년문화’, ‘청년전위’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수사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장마당세대를 체제보위세력으로 결속하고 경제건설 현장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현재 북한의 핵심엘리트는 60대 이상이다. 그런데 김정은의 올해 나이는 32세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자신과 함께 향후 정권을 이끌어갈 젊은 친위세력이 필요하다. 이 ‘새 세대’ 핵심엘리트는 김정은 ‘자기 정치’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제7차 당대회가 세대교체의 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노동신문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에서 핵심 키워드가 ‘청년’인 것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약점이 아닌, 오히려 ‘시대의 젊음’으로 포장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하고 있다. ‘어린 지도자’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세대교체의 정당화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2014년 5월 5일자 노동신문은 김정은 시대를 ‘젊어지는 시대’로 규정하고 북한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까운 장래에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우리 시대가 더 젊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말보다 일을 많이 하는 젊음, 해놓은 일과 경험보다 해야 할 일의 계획과 착상을 더 많이 논하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젊음을 예찬하면서 “전 사회에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게 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제제재가 지속·강화되는 상황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내세우는 ‘희망고취’가 ‘희망고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